

## **Mediated Effect of Aggression and Adjusted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Park, Jae Hak (Kyungmin University)  
Yun, Chun Mo<sup>1)</sup> (Kyungmin University)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s would affect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through the medium of aggression, and whether their ego-resilience would produce any protective effects to act as a buffer of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The 7th-year dat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or the panel of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ere in the first-grade in high school as of 2016 were utilized. Out of all the data from 2,378 students, the data from 1,979 students were analyzed except some that didn't serve the purpose of the study or were uncomple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s ascertained that the peer attachment of the teenagers exerted a direct influence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other words, the adolescents who were more attached to their peers were found to be more receptive to multiculturalism. Second, the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had an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rough the partial medium of aggression. Third, it's discovered that the ego-resilience of the teenagers buff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even moderate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that peer attachment had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rough aggression at the same time. As the finding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ego-resilience produce buffering effects as a protective factor, the roles of it is of great importance, and various programs and psychoemotional support are necessary to bolster the ego-resilience of teenagers to improve their multicultural receptivity.

**Key Words:** Peer attachment, aggression, multicultural acceptance, ego-resilience

---

---

1) Corresponding Author: Yun, Chun Mo, Kyungmin University, Seoburo 545,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01369 / E-mail: chunmo@hanmail.net

##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재학 (경민대학교)  
윤춘모<sup>1)</sup> (경민대학교)

---

### < 요약 >

---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매개로하여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영향관계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보호효과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 데이터(2016년, 고등학교 1학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전체 2,378명중 무응답을 제외한 1,979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다문화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문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부분매개로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다문화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공격성과 다문화수용 간의 관계를 완충할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거쳐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다문화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아탄력성 역할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다문화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또래애착, 공격성, 다문화수용, 자아탄력성, 조절된 매개효과

---

1) 교신저자: 윤춘모, (01369)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 E-mail: chunmo@hanmail.net  
논문투고: 2018. 11. 19 / 심사일자: 2018.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8. 12. 15

## I. 서론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로 이루어진 가구는 316,067가구(가구원 963,174명)로 전체 가구대비 1.6%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6). 또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보고서(2018)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2년 전체 학생의 .7%(46,954명)에서 2017년 4월 현재 1.9%(109,387명)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에 청소년(중·고교·대학생) 3,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는 67.6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2010 ~ 2014년 실시된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 항목에서 한국은 59개국 중 51위였다(WVC, 2015).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에 개방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며,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성,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시기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발달 시기(주석진 외, 2013; 조은정, 2008)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사회를 보는 관점과 사회화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편,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사회성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두 변인 간의 영향관계 안에는 이들을 매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격성이다.

Tao 외(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Neuropsychological Chin Model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은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과 같은 대처전략을 통해 환경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도가 심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종민 외, 2018). 즉, 청소년의 불안정한 또래애착이 노출될 경우 공격성이라는 부정적인 대처방식이 일어나고 이러한 대처방식은 이전의 경험과 결합하여 부정적인 다문화수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Neuropsychological Chin Model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매개로하여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또래관계에 노출된 청소년 일지라도 다문화수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자형 외, 2013; 백승희 외, 20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부정적인 또래애착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경 외, 2015; 박애선, 2017). 이렇듯 보호요인은 부정적인 또래애착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적응적인 발달을 이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Perkins & Jones, 2004). 따라서 부정적인 또래애착의 경로파악과 함께 개입의 시점이 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 연구에 있어서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파악하고 그 경로 안에서 ‘자아탄력성’의 보호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예방적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호요인으로 주목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부적응적인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 심리적 변인이다(Klohn, 1996). 또한, 우울과 불안을 중재하고(이은석 외, 2010) 다문화수용(정민아 외, 2015)이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하는 요인이다(박성무 외, 201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김영경, 2013)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김영민 외, 2012; 박순주 외, 2016).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이경자 외, 2016),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영향관계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이를 완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올바른 또래애착을 형성을 유인하고 다문화수용 이해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위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보호효과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또래애착은 또래들로부터 느끼는 교감과 이해를 말한다(이수하, 2005). 따라서 또래의 지지와 이해, 소통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석진 외, 2012). 또한, 불안정한 또래애착은 청소년 비행과 탈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Lee, Shah, & McLeod, 2013). 특히 오늘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친사회적 가치를 접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얻는 중요한 통로로 다문화수용을 들 수 있다(박현정 외, 2015; 진은설 외, 2008).

최근의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 간의 관련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래애착 변수 외에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다(이하나, 2018; 성경주 외, 2017). 본 연구와 동일하게 또래애착 변수를 활용하여 다문화수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하나, 2018; 박현정 외, 2015; 김선아, 2013; 이견남 외, 2013; 김경근 외, 2012; Hunter & Elias, 1999),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에 주는 영향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또래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전현정 외, 2017; 정대경, 2017; 이수경 외, 2014; 주은지, 2010), 또래와 친한 관계일수록 다문화수용에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이자형 외, 2013), 사회적 친밀도, 교우관계는 다문화수용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지영 외, 2015; 정석원 외, 2012).

이렇듯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다문화수용에 높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긍정적인 또래관계 등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살핀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 사이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 2.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발달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조현열, 2012), 우정은 친밀감, 안정감, 신뢰 등과 같은 정서적 기능을 제공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또래와의 불완전한 애착을 경험한 청소년은 애착을 내면화함으로써 공격성, 비행과 탈선행위 등을 보인다(Lee, Shah, & McLeod, 2013). 특히, 또래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두 변인 간의 정적관련성이 보고한 연구(심혜수, 2018; 윤진아, 2010; 양점도 외, 2009; 황숙영, 2007), 부적관련성이 보고한 연구(박소윤, 2017; 나종민 외, 2018; 서보람, 2014) 등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성은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공격성이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신효정 외, 2014; 조민규 외, 2014; 이호택, 2012; Wills & Stoolmiller, 2002), 나종민 외(2018)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성 정도가 심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서보람(2014)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다문화수용성과 부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공격성은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역할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추이 변화 연구한 나종민과 한희정(2018)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관계, 공격성과 다문화수용 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성은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의 관계에서 매개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서 그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 3. 공격성과 다문화수용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으로(Block & Block, 1980)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능력이나 상태를 말한다. 자아탄력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발휘되어 또래애착(나유민, 2011), 스트레스 대처방식(나유민, 2011; 이희선 외, 2011)등 청소년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긍정적 적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다경 외, 2015).

자아탄력성은 공격성을 조절하고 중재하며(박순주, 2016; 이경자 외, 2016; 김영민 외, 2012; 이은석 외, 2010), 학교생활적응을 조절하며(고미숙, 2015), 정신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하는 요인(고재량, 2014; 박성무, 201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김영경, 2013), 또래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는 선행연구(오선주, 1992; 한희진, 2009)의 결과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이하나, 2018; 서희연 외, 2017)를 볼

때, 문제행동을 낮추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양종국 외, 2002) 보호요인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내적·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부정적 정서경험을 회복하고(Block & Block, 1980),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게 하는(김경수 외, 2011) 다문화수용을 조절하는 좋은 대처자원임을 밝히고 있으며, 공격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에서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나종민 외, 2018). 그 밖에도 개인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을 완화시켜 다문화수용성을 조절하는(장진경 외, 2015)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위험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문제행동을 완화시켜주는 보호기제로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탄력성, 다문화수용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아탄력성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통제변수)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사회적 위축, 휴대전화 의존을 들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다수의 선행연구를 보면 다문화수용과 관련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윤인진 외, 201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경근 외, 2012; 장은화 외, 2013), 다문화수용성에 관해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인태정, 2009; Pascarella, Edison, Hagedorn, & Terenzini, 1996)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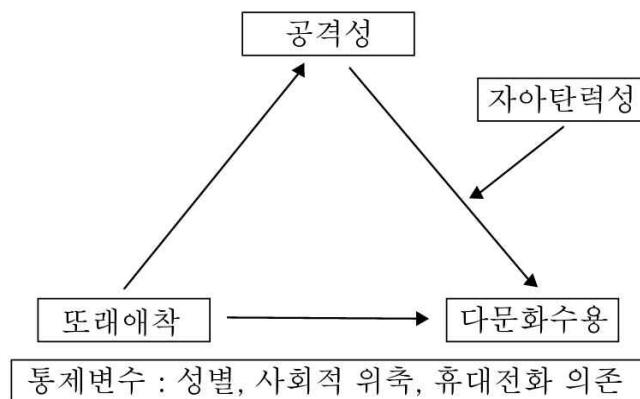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라종민 외(2018)와 서보람(2014)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문제인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심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사회적 위축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 태도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고(피승정, 2013), 이는 다문화수용성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심미영 외 2017; 홍봉선, 2017; 박지윤 외, 2015). 사회적 위축은 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써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밖에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변인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이지섭, 2018), 스마트폰을 정보 검색이나 가족과의 대화 등의 의사소통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청소년일수록 다문화에 대해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채수은, 2014). 이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진 성별,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제하여, 청소년의 또래애착, 공격성, 자아탄력성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정책연구원(2016)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KCYPS)’ 중 초4패널 7차년도(고1, 2016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전체 2,378명중 무응답을 제외



한 1,979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79)

변수		N	%
성별	남	1,036	52.3
	여	943	47.7
남녀공학	남자학교	448	22.6
	여자학교	447	22.5
	남녀공학	1,084	54.9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35	72.5
	자율형	94	4.7
	예체능	26	1.3
	과학,외국어	21	1.1
	마이스터고	27	1.4
	특성화	354	17.9
	기타	22	1.1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697	35.2
	건강한 편이다	1,166	58.9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11	5.6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5	.3

조사 대상 고등학생 성별은 남자가 1,036명(52.3%), 여자가 943명(47.7%)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 유무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084명(54.9%)으로 제일 많았고, 남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448명(22.6%),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447명(22.5%)으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가 1,435명(7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 354명(17.9%), 자율형 고등학교 94명(4.7%), 마이스터고등학교 27명(1.4%), 예체능 고등학교 26명(1.3%), 과학고·외국어고등학교 21명(1.1), 기타 2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한 편이다’가 1,166명(58.9%), ‘매우건강하다’가 697명(35.2%)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1,863명(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가 111명(5.6%),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가 5명(.3%)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 가.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2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으로 재구성한 김지연(1995)의 애착척도(IPPA)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점수화 방식은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문항 중 3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의미를 일치시켰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21로 나타났다.

#### 나. 공격성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문제행동 자기보고형 척도’ 중 정서조절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화 방식은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역문항 처리를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격적인 성향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져서 긍정적인 행동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33로 나타났다.

#### 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의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점수화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1

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85로 나타났다.

#### 라. 다문화수용

다문화수용은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다문화수용도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점수화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58로 나타났다.

#### 마. 통제변수

통제변수 중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더미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척도를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97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은 이시영외(2002)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는 .865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통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이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4.0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시한 단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셋째,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중다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Modprobe Macro(PROCESS version 3.0 by Andrew F. Hayes)를 활용하여 Aiken, West, 그리고 Reno(1991)가 제시한 특정값에서의 조절변인의 유의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eacher 외(2007)가 제시한 SPSS Modprobe Macro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John-Neyman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변인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특징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평균은 1.85(S.D.=.45), 매개변수인 공격성은 1.83(S.D.=.54),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은 2.10(S.D.=.42),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은 1.84(S.D.=.5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p <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로 투입될 또래애착, 공격성,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계수가 .50을 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VIF와 공차 한계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또래애착	공격성	자아탄력성	다문화수용
또래애착	1			
공격성	.320***	1		
자아탄력성	.433***	.254***	1	
다문화수용	.255***	.134***	.334***	1
M	1.85	1.83	2.10	1.84
SD	.45	.54	.42	.56

\*\*\*  $p < .001$

## 2.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 간의 관계에 있어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Model 1의 F값은 39.724( $p < .001$ )이며, 또래애착의 b값은 .273( $p < .001$ )로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문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매개변수인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피는 단계로 회귀모형의 F값은 144.663( $p < .001$ ), 또래애착의 b값은 .229( $p < .001$ )로 나타나 또래애착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Model 3은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 Model 3 회귀모형 F값은 유의수준에서 32.267( $p < .001$ )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b값의 변화량과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b값은 .273( $p < .001$ )에서 .265( $p < .001$ )로 감소하여 공격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매개효과 계수는 .0723(.273 x .065)이다.

<표 3> 매개효과 분석

		Model 1 DV: 다문화수용		Model 2 DV: 공격성		Model 3 DV: 다문화수용	
		b(S.E.)	t	b(S.E.)	t	b(S.E.)	t
또래애착		.273(.030)	14.326***	.229(.026)	-8.677***	.265(.030)	8.764***
공격성						.039(.026)	1.526***
통 제 변 수	성별	-.057(.025)	-2.33**	.043(.022)	1.986*	-.059(.025)	-2.396*
	사회적위축	-.056(.018)	-3.20***	-.177(.016)	-11.370***	-.049(.018)	-2.718**
	휴대전화의존	-.043(.020)	-2.17*	-.209(.018)	-11.898***	-.035(.020)	-1.700
F값		39.724***		144.663***		32.267***	

\*\*\*  $p < .001$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효과 계수가 0.0723으로 부스트래핑 계수 0.0715와 0.0008의 차이(bias)를 보였다. 편이과정을 통해 모수 추정치를 95% 신뢰구간에서 추출된 하한값 .501, 상한값 .7981은 모집단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 $H_0$ )을 기준으로 실제 추정치가 0이 될 확률은 p값이 .001로 나타나 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Preacher

et al., 2007).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다문화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 계수	붓스트래핑 계수	SE	95% 신뢰구간		p
			하한값	상한값	
.072	.072	.018	.501	.781	.001

### 3.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공격성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을 투입하기 전인 Model 1의 경우 F값이 143.283( $p < .001$ )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회귀식의 설명력은 12.7%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을 추가한 Model 2는 F값이 51.668( $p < .001$ )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회귀식의 설명력은 13.9%로 나타났다. Model 1에 상호작용을 추가하면서 증가된 설명력은 1.2%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또한,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공격성의  $\beta$  값은 .169( $p < .001$ ), 상호작용의  $\beta$  값은 -.146( $p < .01$ )로 상호작용이 투입된 이후 음의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즉, 청소년의 공격성자아탄력성은 공격성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절효과 분석

		Model 1		Model 2	
		$\beta$	S.E.	$\beta$	S.E.
독립변수	공격성(A)	.169***	.029	.153***	.023
조절변수	자아 탄력성(B)	.366***	.031	.365***	.036
상호작용	(A)×(B)			-.146**	.056
	Cons		.761		.978
	VIP/Durbin-Watson		1.230/2.045		1.046-1.428/2.037
	F		143.283***		51.668***
	R <sup>2</sup>		.127		.139
	$\Delta R^2$				.012***

\*\*  $p < .01$ , \*\*\*  $p < .001$

비고. 상호작용항은 공격성(A)×자아 탄력성(B); 통제변수로 성별, 사회적 위축, 휴대전화 의존을 투입함.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ken과 West(1991)는 조절변수의 평균값  $\pm 1SD$ 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검증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SPSS Modprobe Macro((PROCESS Procedure for SPSS Release 3.0)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값이 커질수록 기울기는 점차 작아졌으며, 모든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두 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자아탄력성의 조건값에 따른 공격성의 단순기울기

		b	S.E.	t	LLCI(b)	ULCI(b)
자아 탄력성	-1SD	.087	.087	3.060**	.031	.143
	Mean	.050	.050	2.230*	.006	.095
	+1SD	.013	.013	.433*	-.047	.074

\*  $p < .05$ , \*\*  $p < .01$ , \*\*\*  $p < .001$

비고. LLCI: B의 신뢰구간 95% 내에서 하한값. ULCI: B의 신뢰구간 95% 내에서 상한값.

####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다음 <표 7>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단계로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통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다. <표 7> 상단의 매개변수모형에서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89, p < .001$ ). 또한, 하단의 조절변수모형에서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61, p < .01$ ). Preacher와 동료들(200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표 7>을 통해 나타난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  $f(\hat{\theta}/W)$ 는 다음과 같다.

$$f(\hat{\theta}/W) = \hat{a}_1(\hat{b}_1 + \hat{b}_3 W) = .389(.023 + (-.161) \times (\text{자아탄력성}))$$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크기가 커질수록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경유하여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모형(종속변수: 공격성)			
	$\beta$	S.E.	t
상수	1.113	.049	22.657***
또래애착	.389	.026	15.036***
조절변수모형(종속변수: 다문화수용)			
	$\beta$	S.E.	t
상수항	.794	.070	11.297***
또래애착	.160	.030	5.354***
공격성(b1)	.023	.023	.990*
자아탄력성	.344	.032	10.834***
상호작용항(b3)	-.161	.055	-2.908**

\*  $p < .05$ , \*\*  $p < .01$ , \*\*\*  $p < .001$

비고. 상호작용항은 공격성 x 자아 탄력성; 통제변수로 성별, 사회적 위축, 휴대전화 의존을 투입함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특정한 값(평균과 평균값±1SD)에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의 수준이 낮은 경우(-1SD)의 매개효과는 .227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평균값인 경우 .160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1SD)는 .0930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매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거쳐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완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자아탄력성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b	S.E.	LLCI(b)	ULCI(b)	
자아탄력성	-1SD	.227***	.038	.154	.301
	Mean	.160***	.030	.102	.219
	+1SD	.093*	.038	.019	.168

\*\*\*  $p < .001$

비고. LLCI: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통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동료들(2007)이 제시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청소년 발달에 적절한 개입 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다문화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 친한 관계일수록 다문화수용에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이자형 외, 2013), 또래애착이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전형정 외, 2017; 정대경, 2017; 이수경 외, 2014; 주은지, 2010),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하나, 2018; 박현정 외, 2015; 김선아, 2013; 이건남 외, 2013; 김경근 외, 2012; Hunter & Elias, 199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또래애착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친밀도와 교우관계는 다문화수용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최지영 외, 2015; 정석원 외, 2012), 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지역사회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또래애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인식 및 수용에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되지 않도록 또래애착 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부분매개로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을 조절해 줌으로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개입의 지점이 될 것이다(나종민, 한희정, 2018). 현재 청소년은 입시와 연결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욕구수준 및 심리 정서적 안정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조절, 봉사활동, 문제해결능력, 관계개선역량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격성 등 위기관리를 잘 대처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공격성과 다문화수용 간의 관계를 완충할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거쳐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낮은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완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순주, 2016; 이경자 외, 2016; 김영민 외, 2012; 이은석 외, 2010). 그러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정규수업과정을 포함한 교과외의 활동 등을 통해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고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다문화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및 참여가 중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현되는 특징이 있어(Dyer & McGuinness, 1996)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이에 따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동일변인에 대한 잠재성장 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의 변화하는 양상 및 그 변화의 관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절변인을 자아탄력성으로 상정하였으나 청소년의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조절하는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공격성, 자아탄력성이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각 변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변인별 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 다문화수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수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미숙(201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 생활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0), 280-291.
- 고재량(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 스마트폰중독, 자살생각의 관계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근, 황여정(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경수, 김화경(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선아(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다문화수용성이 내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5, 59-89.
- 김영경(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1), 127-156.
- 김영민, 임영식(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구조모형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지연(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나유민(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나종민, 한희정(2018).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추이 변화 연구. **사회과학연구**, 34(1), 207-227.
- 박성무, 허진영(2016). 생활체육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회복탄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273-286.
- 박소윤(201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공격성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순주, 박은영, 이송이, 장아현, 조서원(2016).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23(3), 310-319.
- 박애선(2017).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93-106
- 박지윤, 박은민(201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233-251.
- 채수은(2014). 매체 활용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 63(3), 433-461.
-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16(4), 105-127
- 백승희, 정혜원(2016).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과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집**, 460-482.
- 서보람(2014).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5(2), 48-23
- 서희연, 최지선, 박성환, 신성만 (2017).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8): 455-455.
- 성경주, 이경아, 김재철(2017).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1), 51-72.
- 신호정, 이문희(2014). 애착외상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291-312.
- 심미영, 이온유(2017).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자아존중감 및 다문화고정관념과 다문화수용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문화학술원**, 8(6), 547-559.
- 심혜수(2018).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양계민, 정진경(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점도, 박영국(2009). 가족 요인과 또래 지지가 자기효능감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211-235.
- 양종국, 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오선주(1992).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가족과 환경 연구**, 30(3), 177-191.
- 윤인진, 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579-591.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16(4), 189-206.
- 윤진아(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이건남, 김영은, 이기용(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14.

- 이경자, 한연현, 김옥희(2016). 애착의상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부적정서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집**, 3-18.
- 이다경, 염시창(2015).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277-298.
- 이수경, 진선미(2014).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지역사회친밀감,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6(4), 103-121.
- 이수하(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석, 안찬우(2010). 노인의 여가 스포츠활동 참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9(4), 325-337.
- 이자형, 김경근(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 53-77.
- 이지섭(2018).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 연구: 스마트폰중독 효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이하나(2018).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구조 모형 구축. **한국산학기술학회**, 19(2), 302-310.
- 이호택(2012).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여성연구**, 83, 101-147.
- 이희선, 선우현정(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가족과 환경 연구**, 49(6), 109-122.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2), 339-369.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은화, 어주경(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 21(3), 289-305.
- 장진경, 전종미, 정영혜(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초등학교의 성별과 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53-72.
- 전현정, 정혜원(2017). 순차적 경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집단간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335-360.
- 정대겸(2017).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 요인 분석: 공동체 의식, 체험 활동, 교우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 26(2), 349-365.
- 정민아, 김은혜(2015). 중학생이 인식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

- 회, 439-452.
- 정석원, 정진철(2012).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5(1), 51-68.
- 조민규, 김준경, 송현정(2014). 중학생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54-79.
- 조은정(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1.
-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현열(201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또래애착이 중·고등학생의 이성교제 만족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 주석진, 조성심, 김근아(2013). 군인가정 자녀의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과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2), 69-95.
- 주은지(2011).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낭만 애착: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8), 161-186.
- 진은설, 임영식(2008). 자기효능감, 또래영향, 부모모니터링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4), 27-47.
- 최지영, 김재철(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 가구부문-다문화가구. 통계청
- 피승정(2013).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 중독 가능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차이.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한국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KCYPS). 한국정책연구원.
- 한희진(2009).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교육문제연구**, 34(1), 80-100.
- 홍봉선(201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7), 83-110.
- 황숙영(2007).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London New Delhi.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oness (Eds.), *Minnesota symposia and child psychology*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 276-282.
- Hunter, L., & Elias, M. J. (1999). International Friendship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competence: How are they relat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51-573.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1079.
- Lee, N. J., Shah, D. V., & McLeod, J. M. (2013). Processes of political socialization: A communication mediation approach to youth civic engagement. *Communication Research*, 40(5), 669-697.
- Pascarella, E. T., Edison, M., Nora, A., Hagedorn, L. S., & Terenzini, P. T. (1996). Influences on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and challenge in the first year of colleg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2(2): 172-204.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5), 547-563.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5): 547-563.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 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571-645). New York: Wiley.
- Tao, R., Ying, L., Yue, X. D., & Hao, X. (2007). *Internet addiction: Exploration and*

*intervention*. Shanghai, China: Shanghai Peoples's Press, 12.

Wills, T. A., & Stoolmiller, M. (2002). The role of self-control in early escalation of substance use: A time-varying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4), 986-997.

WVC. (2015). *World Values Survey*. Institute for Comparative Survey Research,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